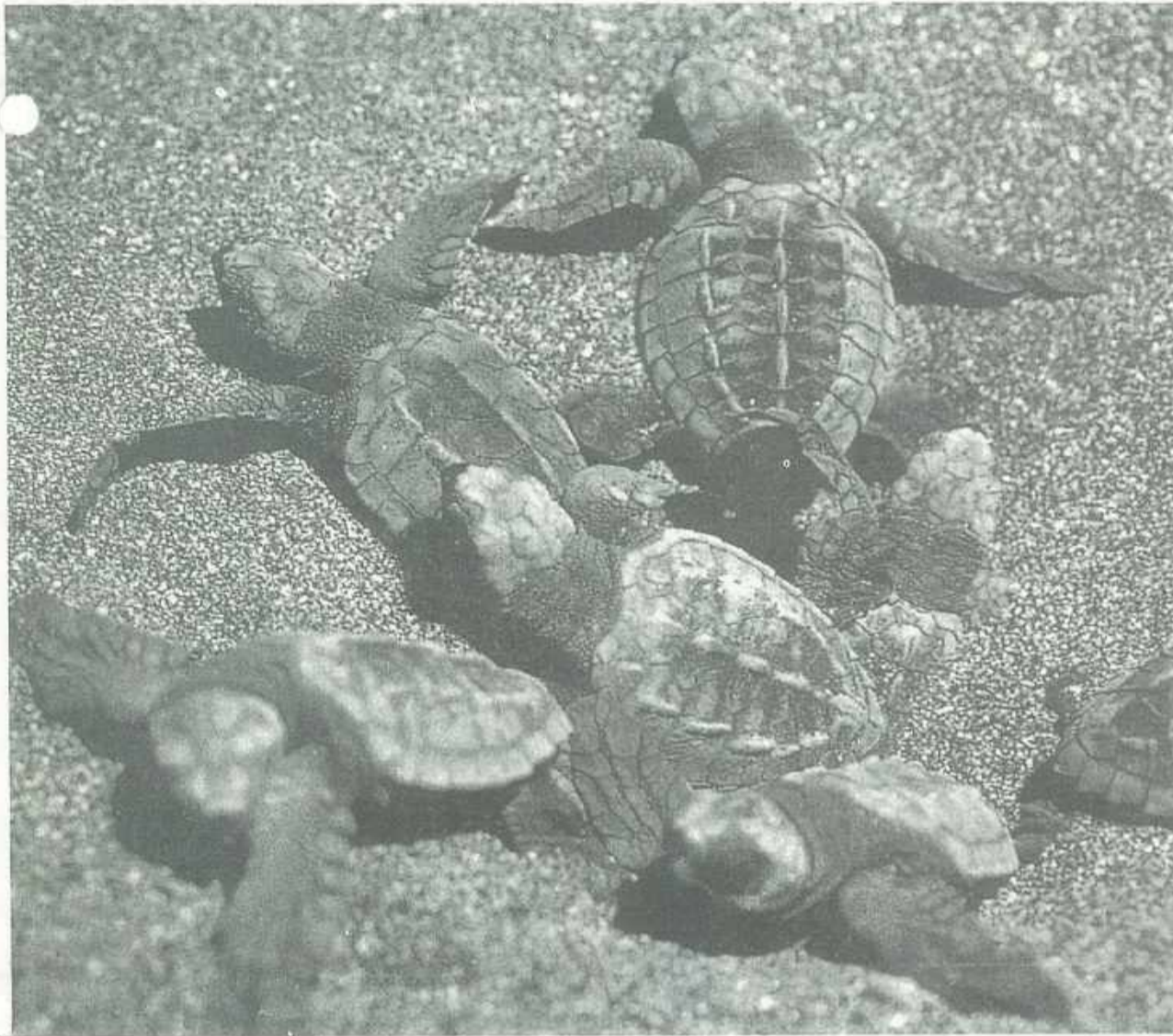


150마리중에서 불과 3마리만이 살아남는다



거북: 2억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큰 변함없이 살아온 동물. 육지에서 부화되는 새끼는 한 번에 약 150마리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황새 등의 먹이가 되고 극소수만이 바다로 가서 산다.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새끼 거북만이 살아서 바다에 가듯이—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함으로써 세계를 개척하는 일이 한화그룹이 추구하는 21세기 국제화 개념입니다.

의식 개혁을 통해 새로운 사고로 무장하는 일— 작은 기술을 소중히 하여 큰 기술을 만드는 일— 전 세계를 우리의 일터로 만드는 일— 이것이 21 세기를 향한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앞당기는 일— 한화그룹이 하고 있습니다.



한 화 그룹



한 화 그룹

會長 金昇淵

會 員 短 信

宗報編輯委員會에서는 宗報紙齡 十號를 自祝하면서 1號에서 10號까지를 希望하시는 宗親에게 無償으로 配布하여 드림으로써 宗親들의 많은 呼應이 있었고 또 한 우리 宗門의 教養事業과 弘報事業에도 寄與한 바 있습니다 (1995年 9月 24日 本報 第十一號 參)

아래에 김형선 宗親의 書信을 소개합니다 (一無) (編輯室)

종보 편집 위원회 위원장님 귀하
이렇게 서신으로 연락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동안에 한번쯤은 종친회에 참석한다고는 마음을 먹었지만
실현을 만 번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한살한살 나이만 먹다보니 건강 염육을 잊어버리고
삼았다는 질환감이 들더군요 이제서야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도 귀저 (마감) 생활을 많이 하다보니 건강
종친에 대하여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마감살이를 청산하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생활
하다가 이번에 처음 종보를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년담까지 1호 부터 11호 까지 보내주신다는 기사
를 보았습니다 만 지금이라도 늦은 것은 있지만 저한테도
거회가 될려는 거요 거회가 주어진다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종친회에 관해서 너무 모르고 저넨것 같습니다
이렇게 늦게나마 우리 염육에 관해서 눈을 뜨게된 것에 하나씩
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마저거를 이용해 서신을 띄우게 된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종친회를 위해 수고 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1996, 4, 2,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289번지 6동1반

김 형 선

☎ (0351) 6 4-2 6 2 1

華 燭

市内城東區 金文載 宗親의 長男 光錫君은 1996年 10月 5日 土曜日 午後 1時 성남시의 소망웨딩홀 프리아룸에서 김연씨의 차녀 명숙양과 혼례식을 성대히 올렸다. 축복을 빈다. (一無)

本會 監事인 金景南 宗親의 長女 志淑양은 김광일씨의 次男 김중남군과 去年 10月 12日 土曜日 午後 2時 안산 결혼회관에서 結婚하였다. (一無)

金允喜 理事의 長男 志勳君이 1997年 1月 5日 日曜日 午後 1時 한강호텔 웨딩홀 5층 다이아몬드실에서 정례석씨의 長女 영은양과 結婚식을 올렸다. (一無)

本會 副會長인 金權熙 宗親의 次녀 정유양은 1997年 1월 19일 오전 11

本會 理事이시며 順金會代表 會務委員이신 金弘泰 宗親의 3女 金宜廷양이 1月 25日 午後 4時 明洞 天主敎 聖堂에서 박형갑씨의 아드님인 박극태군과 結婚식을 盛大히 舉行하였다. (一無)

金世淵 宗親은 1997年 2月 1日(陰) 12月 24日) 土曜日 午後 1時 벽계 농협회관 예식홀에서 高俊夫氏의 妹氏인 高和淑양과 本會 金鍾植 會長의 主禮로 結婚식을 盛大히 舉行하였다. (一無)

金相基 理事(光州市, 第一 皮革 社長)의 次女 덕희양은 去年 11月 13日 서울 63빌딩 3층(코스모스 홀)에서 신동현씨의 次男 상훈군과 結婚식을 올린대 이어 금년 3월 15日에는 마내팔은희양이 光州市 명

성예식장 1층 特室에서 박 노중씨의 次男 도국군과 花 축을 밝혔다. 두 家庭에 幸福이 가득하기를 祈願하는 바이다. (一無)

金炳龍 理事의 次男 寅載君은 김영기씨의 長女 경화양 과 3月 29日 토요일 오후 1時 30分 어린이회관 예식부 과학관 3층 시청각 실에서 華燭을 밝혔다. (一無)

金重吉 理事의 長女 金志恩 양은 오는 4월 13일 일요일 12시에 시내 상록회 관 무궁화홀에서 최원규씨의 次男 정나광군과 결혼식을 올린다. (一無)

아무췌록 두 사람의 새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하는 바이다. (一無)

訃 音

안산시 천부동에 사시는 金昌柱 宗親의 喪이신 江陵 崔氏께서는 八十四歲를 一 期로 10月 23日 自宅에서 別世하여 同月 25日 安山市立公園墓地에 安葬하였다.

金康旭 檢事의 父親 東學公 께서는 1996年 10月 29日 別世하여 10月 31日 안동시 도산면 의일 동 先塋下에 安葬하였다.

麻浦區 西橋洞에 사시는 承 煥 宗親의 先親 泰淳公께서는 昨年 10月 30日 午前 1時 享年 86歲를 一 期로 別世하여 11月 1日 坡州郡 감탄면 先塋下에 安葬하였다.

金炳和 理事님의 父親이신 鳳植(일명 봉근)公께서는 1996年 12월 13일 12시 30분에 노환으로 자택에서 별세하셨다.

1996년 12월 15일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산 3번지 先塋下에 안장하니 유족으로는 2남 2녀가 있다.

金文煥(現 大韓綜合金融, 代表理事, 社長) 宗親의 慈 堂이신 豊山金氏께서는 老 患으로 서울 延世大學校病 院(세브란스 병원)에서 入 院 加療中 一九九七年 一 月 八日(陰) 十一月二十九日 上午 五時 八十七歲를 一 期로 別世하였다. 葬日은 一 月 九日이고 葬地는 開慶市 加恩邑 鵲泉里 玉女峰 先塋 下에 安葬하였다. 中央宗親 會에서는 金鍾植 會長님이 香料를 傳達하고 吊意를 表 하였으며 金仁熙 宗務幹事 와 金炳鎰이 問喪하였다.

金東泰 理事께서는 지난 2 月 6日 別世하여 2月 7 日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산 6-2 低洞 先塋下에 安 葬하였다. 유자녀는 明熙를 비롯하여 3男 2女가 있다. 삼가 명복을 비는 바이다.

永登浦 漢方病院

理事長 金 喆 俊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永登浦洞 4가 153-1

電話 : 678-8225, 678-0848



-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副會長
- 持平公派宗會 會長
- 永登浦漢方病院 理事長
- 法務部更生保護會 名譽會長

任員 年會費 收納 現況表

(1996. 9. 16 ~ 1997. 3. 24)

副會長 年會費	
金東吾 8차분	300,000
金喆熙 8차분	300,000
金權熙 8차분	300,000
計	900,000

顧問 年會費	
金仁培 8차분	30,000
金大淵 7차분	30,000
計	60,000

理事 年會費	
金秉熙 9차분	30,000
金裕運 8차분	30,000
김원선 8차분	30,000
金浩淵 4~6, 8차분	120,000
김일정 8차분	30,000
김윤희 8차분	30,000
김봉희 8차분	30,000
김호재 9차분	30,000
김동석 7차분	30,000
金允禧 9차분	30,000
計	390,000

代議員 年會費	
김상목 1, 3~7차분	160,000
김동엽 8차분	20,000
김동현 4~8차분	100,000
金柱貞 4~8차분	100,000
김인호 3, 7, 8차분	60,000
金東俊 6~9차분	80,000
김동찬 3, 8차분	50,000
김우재 7, 8차분	40,000
計	610,000

世帶當 年會費	
김중현 영동포구	20,000
김용훈 은평구	10,000
김구연 강서구	20,000
김동한 영동포구	10,000
김동일 대전시	20,000
計	80,000

世蹟 配當金	
김남수 世蹟 2卷代	20,000
김남수 世蹟 5卷代	50,000
金奉植 世蹟 1卷代	10,000
金正剛 世蹟 1卷代	10,000
金漢福 世蹟 1卷代	10,000
計	100,000

宗報發刊 贊助金	
金東吾 開慶市	300,000
金光熙 瑞草區	300,000
金孝南 金浦郡	300,000
金仁培 日本國	300,000
金喆俊 永登浦區	300,000
金政壹 光州市	300,000
김상기 光州市	300,000
김원걸 安東市	300,000
金龍薰 恩平區	40,000
宗睦會	200,000
한화그룹	2,000,000
金東洙 全南 順天市	300,000
金釘祿 城東區	100,000
計	5,040,000

贊助金	
金政壹 光州 西區	100,000
金龜淵 高陽市	100,000
金炳鎰 江南區	300,000
計	500,000

任員의 未納年會費 納付 通知

宗親會 運營의 原動力이 되는 任員年會費의 納付實績에 極히 不振하여 宗親會 運營에 支障이 있어 不得已 1996年 7月 10日字로 未納任員에게 個別通知한 바 있으나 아직도 納付하지 않으신 一部 任員께서는 오는 3月 末日까지 納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온라인 口座
 농 협
 069-01-212885 김중식
 한일은행
 165-138321-12-401 김중식
 (財務幹事)

載錫 宗孫의

他界를 哀悼함



일무헌 김병일

■ 金載錫(元名, 在錫) 宗孫이 1997年 1月 28日 午後 5時 64歲를 一期로 廣州郡 退村面 元堂里 景德齋에서 他界하여 1月 30日 元堂里 先塋下에 安葬하였다. 遺族으로는 宗婦 咸陽 呂氏를 비롯하여 漢哲, 漢龍 兄弟와 亨淑, 漢淑 姉妹가 있다.

내가 초중 때 직접 問喪하고 遺族들에게도 부탁하였거니와 故人은 이승에서 못다 이룬 家事나 宗事는 새로운 宗孫 漢哲에게 맡기고 아무 조독 모든 煩惱를 훌훌 털어버리고 저승에서는 평온하고 安락한 복록을 이루기를 삼가 祈禱하는 바이다. (一無)

(株) 東南 特殊 運輸
 (株) 東南 商 運

대표이사 김 동 수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544번지
 사무실 : (0661) 755-0124~5
 FAX : (0661) 755-0188
 자택 : (0661) 52-8441
 호출 : 012-610-8913
 휴대폰 : 011-622-3125

(특수화공약품운송전문)
 (16K 18K 20K 28K)

- 東南特殊運輸(株) 代表理事
- 東南商運(株) 代表理事
- 中央宗親會 理事
- 監察公 17代孫

법 률 상 식

<알기쉬운 가족법>

■ 호 주 승 계 ■

● 호주는 누가 되나

호주의 아들, 딸, 처, 어머니, 며느리의 순이다. 그러나 호주의 맏아들이나 맏손자이면 나이가 많건 적건, 본인이 원하건 원치않건, 능력이 있건 없건 강제로 호주가 되게 했던 것을 본인이 원치 않으면 호주승계를 포기하고 분가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맏아들이 호주인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그에게 아들 즉 손자가 있으면 그 손자가 둘째아들이나 셋째아들보다 먼저 호주가 되던 것을 폐지하여 장손이 있더라도 둘째아들 또는 셋째아들이 호주가 되게 하였다.

● 성이 다른 양자가 호주가 될 수 있나

호주와 동성동본인 양자만이 호주가 될 수 있던 규정을 폐지하였으므로 성이 다른 양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

● 호주의 권리·의무는

호주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권리·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명무실하던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권, 부양의무, 분가강제권, 각종 동의권, 청구권 등을 없앴다. 호주에게 더 주던 재산상속상의 특권을 없앴고 당연히 상속받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도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상속하게 하였다.

● 본처 소생과 첩 소생의 호주승계 순서는

둘다 아들일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본처 소생이 호주가 된다. 그러나 본처 소생이 딸이고 첩 소생이 아들일 때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첩 소생 아들이 우선한다. 본처 소생의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첩 소생이 호주가 된 경우에는 호주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그 사실을 안지 3년 이내에 법원에 호주승계회복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 재 산 상 속 ■

● 재산상속은 누가 받나

사망한 사람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마지막 상속인의 범위를 8촌에서 4촌으로 줄었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그를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에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고쳤다.

● 자녀없이 죽은 딸의 재산은

아들이 자녀없이 죽으면 부모는 며느리와 공동으로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딸이 자녀없이 죽었을 때 친정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사위가 딸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 가정법에서는 이를 고쳐 자녀없이 죽은 딸의 재산을 친정부모도 사위와 공동으로 상속받게 하였다. 이때 며느리와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는다.

● 재산상속의 비율은

호주상속을 하는 맏아들이나 시집간 딸이나 차별이 없이 아들·딸은 모두 똑같은 몫을 받게 되었다. 즉 아들, 장남·차남, 기혼·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도록 고쳤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의 몫보다 50%를 더 받게 하였다.

● 재산축적에 특별히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우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몫에 그 기여의 몫만큼 더 받도록 고쳤다. 기여의 몫에 대해 상속인끼리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특별기여의 시기와 방법 또는 기여의 정도 그리고 그밖에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해 주도록 하였다. (大尾)

※ 註(編輯室) - 법률상식(알기쉬운 가족법)은 이번 호로 마치고 다음은 <건강상식>을 실을 계획입니다.

宗報 原稿 投稿을 환영합니다

宗報는 中央宗親會의 會報로서 회원끼리 서로 돕고 나누며 宗親會 發展에 寄與하고자 會員 모두가 만드는 會員의 大辭紙입니다.

더우기 우리 祖上님들의 偉大하신 業績을 살피고 그 높은 뜻을 되새겨 나를 알고 나의 뿌리를 아는데 큰 意義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재미있고 有益한 宗報를 만들고자 하오니 宗親 여러분은 다같이 參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라도 宗親 여러분의 投稿을 환영합니다.

■ 투고 내용

一. 宗親會와 宗親끼리의 關係에 있는 行事나 그 活動狀況

二. 宗親間에 相扶相助 하는 美談

三. 宗親의 逸話와 詩 또는 隨筆等

四. 모든 宗親의 動靜(華燭, 祝宴, 學位와 榮轉, 訃音, 其他)

<宗親編輯室>

孝行·善行 宗親을 찾습니다

中央宗親會에서는 孝行과 善行으로 우리 門中을 빛내고 社會에 模範이 되고 있는 宗親을 널리 찾고 있습니다.

우리 門中이 孝行과 善行을 行함에 앞장서고 있는 家門임을 宗報에 掲載하여 널리 弘報하고자 하오니 주변의 美談을 書面 또는 電話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編輯室>

辯護士 金亨民

事務室 : 瑞草區 瑞草洞 1716-4
中央빌딩 402號

電話 : (02) 594-5611
(02) 599-4843



- 辯護士
- 中央宗親會 理事
- 순금회 總務會務委員
- 節齋公 18代孫

金昇淵 本會顧問
名譽 博士學位 받아 個人과 그룹
그리고 門中の 榮譽



리더쉽을發揮하고 있다고 평
價하고 또한 어머니를 위시하
여 장인 장모에게도 지극한孝
子이기도 하다고紹介하면서
金會長에게 이번에 名譽學位를
授與하게되어 매우 榮光스럽다
고 덧붙혔다.

한편 이날學位授與式에는
金會長의 慈堂이신 嘉樂堂 姜
泰泳 女士를 비롯한 金鍾植 本
會會長과 韓家族 그리고 徐廷
和 議員을 비롯한 여러 親知들
이 參席하여 祝賀하였고 그룹
會長團과 社長團 또한 西

中央宗親會의 顧問이시며 韓
國 그룹 會長인 金昇淵 宗親은
去年 10月 31日 西江大學
校로부터 우리나라 企業經營
社會, 文化, 스포츠, 外交分野
에 對한 功勞로 名譽經營學博
士學位를 받았다.

이날 西江大學校 이나시오홀
에서 열린學位授與式에서 朴
弘總長은 人事말에서 金昇淵
會長은 韓화그룹 會長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經濟發
展을 비롯한 社會, 文化, 體
育, 外交에 이르기까지 卓越한

취임 당시 15개 계열사였
던 그룹 규모를 불과 십여년만
에 26개 계열사로 확장, 재
계 9위로 끌어 올림으로써 성
공한 2세 경영인으로 꼽혔다.
이를 축하하는 기념리셉션이
10월 31일 저녁 프라자호
텔 디수홀에서 열렸는데 오후
6시 30분 金會長 내외와 朴
弘 서강대학교 총장이 나란히
축하객을 맞이하면서 시작되었
다.

이 자리에는 金會長의 家族과
親知 西江大 및 성공회 그리고

김승연 회장,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받아
서강대서, 기업경영, 사회, 문화, 스포츠, 외교분야 공로로

學校出身 任職員 등 2百餘名
이 자리를 함께 하여 世門의
誕生을 祝賀했다.

金昇淵 會長이 그룹을 맡은
것은 創業主인 故 玄岩 金鍾喜
會長(金昇淵 會長의 先親)이
81년 작고함에 따라 約 關
29세로 會長에 취임한 金會
長은 명성그룹 6개사와 대형
유통업체인 한양유통, 정인에
너지 나아가 삼희투자금융, 한
양화학 등 諸社의 企業을 인수
해 정상화 시키면서 사업수완
을 발휘했다.

그럼 任職員 등 2백여명이 참
석한 리셉션은 3부로 나누어
進行되었는데 成樂正 총괄 부
회장의 人事에 이어 朴源培 會
長이 任職員을 대표하여 祝賀
紀念牌을 전달하였고 朴弘總長
의 인사말에 이어 金會長의 長
男인 金東官君의 꽃다발 증정
순으로 이어졌다.

晩餐 이후에는 國악예술의
한마당이 이루어져 이날의 잔
치를 더욱 빛냈다. (一無)

安東宗親會 始祖
墓祀 團體로 參禮

去月 11月 11日(陰 10
月 1日) 始祖 平陽君 墓祀에
安東宗親會(會長 金東杰)에서
는 婦女會員을 主軸으로 하는
宗親 約 70名이 大型버스 3
臺에 分乘하여 團體로 參禮하
였다. (一無)

그럼 任職員 등 2백여명이 참
석한 리셉션은 3부로 나누어
進行되었는데 成樂正 총괄 부
회장의 人事에 이어 朴源培 會
長이 任職員을 대표하여 祝賀
紀念牌을 전달하였고 朴弘總長
의 인사말에 이어 金會長의 長
男인 金東官君의 꽃다발 증정
순으로 이어졌다.

晩餐 이후에는 國악예술의
한마당이 이루어져 이날의 잔
치를 더욱 빛냈다. (一無)

안동종친회원이 단체로 시
조 묘사에 참례한 후 기념사진
촬영



金柄中宗親 두번째로 詩集 펴냄

金柄中 詩人은 지난 1994年 첫번째 詩集 「아흔아홉번의 맞선, 그리고 자리보기」에 이어 第2詩集으로 「선 한해의 사랑, 그 어머니 나라」를 펴냈다. (本報 第10號 參照)
金柄中 宗親은 1953年 12月 11日 경북, 문경에서 故 一永公의 五男으로 태어나서 月刊 순수문학에 등단하여 한국순수문학회 理事와 서울文人協會 副會長으로 활약하
고 있으며 동인지 「떡갈나무 아래서」 外의 共著가 여럿이 있다. 또한 갈대시 동인으로 현재 金浦稅關에 근무하는 公務員으로 이번 2집 出刊으로 1996年 12月 5日 한국순
수문학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編輯室)

본 시집은 올해로 광복 51주년을 맞이한 조국의 비극적 과거를 현재화하여 민족적 삶인 역사 앞에 서서 깊은 자아의 성찰을 통하여 참회록 같은 연작 서정시 71편을 모아
시집으로 엮었다.

이 시집에 담긴 시들은 6.25전쟁시 낙동강 전투의 최대 격전지였던 경북 포항시 연일면 달전리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시인의 창작동기는 본인이 달전산에 올랐을
때 우연히 장기알 같은 것이 있어 5개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손 놀이감으로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이것이 육이오 때 전사한 사람의 척추 뼈로 밝혀져 이를 창조지
에 싸 양지바른 곳에 묻어준 체험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시인의 아버지(一永公)는 일본 순경에게 잘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물매를 맞으신 후 병을 얻으셨고, 큰 형님(柄準公)은 육이오 때 학도병으로 나가 행방불명 되었으
며, 전쟁으로 홀로 된 형수(長水 黃玉君 女史), 이 아픔을 고스란히 가슴에 안고 평생을 아픔으로 살아오신 어머니(南陽 洪粉男)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詩作을 하여
남북 분단의 아픔을 잘 알지 못하는 오늘의 젊은 세대들과 함께 「우리의 아픔」을 나누어 이를 오늘에 되살려 「우리의 기쁨 만들기」 빛내고자 이를 광복 50주년이 되던 '95년
에 발표하고자 했으나 연중 무휴인 공항세관의 특수성과 날달리 바쁜 감사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예정보다 늦게 본 시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한다.

따라서 본 시집의 제목 「선 한해의 사랑, 그 어머니 나라」에서 「선 한해」는 올해로 광복 51주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광복 51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온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의 토대 위에 이루어질 수 있었으므로 「사랑」이라는 말을 붙였으며, 「그 어머니 나라」에서 「어머니」는 「母」, 「나라」는 「國」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문학의 흐름에서 찾아보기 드문 민족시(애국시)를 엮어낸 것이다. (一無)

第一皮革

社長 金相基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 1번지
전 화 : (062) 223-3517
핸드폰 : 011-608-8262
호 출 : 012-618-6200

- 第一皮革 社長
- 中央宗親會 理事
- 襄景公 19代孫

院祠管理 現況表

院祠名	配亨位	所在地	管 理			
			職 責	姓 名	住 所	電 話
同源齋 (平陽君影堂)	始祖 平陽君 (諱 摠)	順天市住岩面	都有司	金南洙	여천군 울촌면 신산리	0662-82-7759
			有司	金在燮	광주시 남구 전월동 삼익세라믹④	062-676-0197
			有司	金商倫	완주군 고산면 양야리 竹林	0652-261-3935
不二壇 (典書公祭壇)	典書公(諱乙財)	利川市大月面	都有司	金炳潤	이천시 대월면 군량1리	0336-32-3451
	殿直公(諱楨)		有司	金河鍾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051-809-3177
	寧州公(諱碩孫)		有司	金南洙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0338-73-0761
	判書公(諱准)		有司	金延熙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0343-49-9404
月潭祠	襄景公(諱承滢)	開慶市加恩邑	都有司	金斗熙	대구시 수성구 수성2가	053-72-9596
			別有司	金鎮永	문경시 가은읍 작천리	0581-71-6574
景德齋		廣州郡退村面	都有司	金光熙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86-3560
			有司	金權熙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032-461-7730
			有司	金景南	안산시 선부동 968-9	0345-401-5353
芳春書院	양경공, 절재공, 복재공, 남은공, 진사공	해남군 계곡면	別有司	金贊洙	해남군 계곡면 방준리	0634-33-9740
崇節祠	默齋節齋公	금산군 남이면	別有司	金基元	공주시 장기면 태교리1구	0410-857-1898
仁山書院	訥齋公(諱慶言)	예천군 용문면	有司	金鍾九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0584-655-9085
瀟陽書院	忍百堂(諱樂春)	문경시 가은읍	有司	金秉均	문경시 가은읍 전곡리	0581-71-3549
世德祠	竹日軒公(諱光輝)	예천군 하리면	有司	金錫均	예천군 하리면 우곡리	0584-52-7919
四世忠烈門	장의공 정부인 四世	안산시 와동	別有司	金商億	안산시 와동 102-10	0345-82-9814
玄州書院	谿谷公(諱復興)	임실군 지사면	有司	金鍾益	임실군 오수면 신기리	0673-42-5995
龍淵祠	主簿, 判事公	해남군 계곡면	有司	金相彦	해남군 계곡면 여수리	0634-32-5922
孝女閣	商山金氏	문경시 산양면	有司	金秉台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0581-53-0392
盤谷書堂	(固城縣監)	문경시 산양면	有司	金柄濶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0581-52-3546

海南宗親會會長 交
金相默 宗親
新任會長에

全南海南宗親會에서는 96年 5月 10日 定期總會에서 여러 해 동안 수고하신 金正泰會長님의 後任으로 황산면 춘정리의 金相默 宗親을 新任會長으로 選出하였다.
 金相默會長은 창군 및 6.

25 참전 동지회 海南郡支部
 長으로도活躍하고 있으며 앞으로 海南宗親會 發展에 期待하는 바가 크다. (一無)

宗親動靜

前 監査院 監査委員(次官級) 金文煥 宗親께서는 1996年 1月 1日자로 中小企業銀行 理事長을 거쳐 1996年 8



金文煥 社長

月 27日자로 大韓綜合金融 代表理事 社長에 就任하셨다. (二無)

中央宗親會 門中元老 招請 送年的 밤 가져

中央宗親會가 多事多難했던 丙子年을 보내고 希望의 丁丑年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宗親會의 任員님과 門中의 元老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한해를 大過없이 지나게 된 것을 感謝하며 새해를 設計하는데 도움이 될 高見을 듣고자 마련한 「送年的 밤」 行事는 總 招請人員이 133名 이었으나 當日 參席하신 分은 七十餘名으로 江南 區 押鵬亭洞에 있는 「삼원가든」 新館 二層 大宴會場을 가득 메우는 大盛況을 이루었다.



人事하는 金鍾植 中央會長

金鍾植 中央會長은 人事말에 서 우리 宗親들은 相互 親睦을 敦篤히 하고 一致團結하여 새 해에도 宗親會 發展에 더욱 寄與하자고 當付하면서 金 喆熙 서울會長的의 우리 宗親에 對한 向念을 높 이 讚揚하며 오늘날도 百萬원이 넘는 宴會費用을 순수한 個人負擔으로 치루어 진다는 說明에 場內는 拍手소리가 가득하였다.

히 說明하며 그 經緯야 어떻던간에 責任者로서 未安하기 그지 없다 하였고 景德齋維持 管理費로 支拂된 費用에도 簡 單한 言及이 있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送年的

金喆熙 서울會長은 그 간 서울宗親會가 內部 事情으로 모임을 제대로 갖지 못한 事由를 간단



金喆熙 서울會長



밤宴會가 거의 끝날 무렵은 닷없이 中央宗親會會長님의 提請으로 一無 宗親의 健康回復과 지금까지의 勞苦를 慰勞하자는 起立拍手에 高眞技士를 當感케 하였다. (二無)

聞慶市議會議長

金 大 永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316
 電話 事務所 (0581) 71-5588
 自 宅 (0581) 71-5500

- 聞慶市議會議長
- 聞慶宗親會 會長
- 中央宗親會 理事
- 翊贊公 16代孫

盤谷書堂 參觀記

一無軒 金炳鎰

盤谷里는 마을 뒷산 중턱에 큰 盤石이 있으니 上平如盤하여 洞名을 盤谷里로 일컫어 왔는데 옛부터 「箕山 瀨水下에 有盤谷하니 君子而 允之處라」 하였고 뒤쪽 主峯의 來龍이 힘차고 左靑龍과 右白龍가 確實하며 앞으로 瀨江(영강)이 감싸 흐르니 風水에 門外漢인 내가 보아도 必是 天下의 明堂임이 分明하다.

그러기에 一個 自然部落에 옛 遺物이 到處에 傳來하니 그 中에서도 우리 順天金門과 聯關된 것만도 孝女閣을 비롯하여 三百年의 由緒가 있는 盤谷書堂하며 洞名의 由來地인 盤石臺와 秋山에 있는 屹巖齋며 八富者를 後孫으로 두신 魯陵參奉 墓所와 老松地帶 漢詰公의 齋舍인 顯隱亭(영은정) 등 이 모두가 보배로운 유적지요 우리 金門의 자랑이다.



盤谷書堂을 案内하는 月波宗親

그 많은 유적을 一一이 說明하기는 困難함으로 이 중에서 盤谷書堂의 來曆만이라도 略述하고자 한다.

마을 위쪽 盤石臺 아래에 세워진 書堂은 肅宗 甲戌 西紀 1694年, 지금으로부터 三百年前 固城縣監公(諱, 斗元)께서 後進養成을 目的으로 書堂을 廩建하여 春秋로 詩律로 講磨하고 子孫들이 모여 讀書을 敦篤히 하여 많은 業績을 남겼으나 世降俗變하여 廩建當時의 十八門中이 지금은 六門中만이 남아서 頹落한 堂舍만을 겨우 保存하고 있어 後孫된 道理에 悚懼하기 그지없더니 지난 甲戌 八月에 保存管理의 總責(都有司)을 맡은 金湜淵宗親의 周旋으로 六門中이 뜻을 모으고 山陽面長의 積極的인 協贊으로 重修하고 重修記를 세겨서 걸어 놓았다.

위의 「六門中」이라 함은 順天金氏 門中을 위시하여 豊壤趙氏, 開城高氏, 仁川蔡氏, 長水黃氏와 豊山柳氏 門中이고 各門中에서 한사람의 有司를 뽑아 書堂을 管理하고 있다.

우리 門中에서는 盤谷里의 金柄鎰 宗親이 有司인데 地方文化財指定 申請에 圭八 護南宗親과 함께 東奔西走하고 있다 한다. (一無)

萬古의 孝女 商山金氏 盤谷에 있는 또 하나의 孝女閣

金炳鎰(前, 常任顧問)

雨水가 지나고 正月 대보름도 지났지만 아직도 朝夕으로 제법 날씨가 차겁다.

二月 二十七日 아침 일찍이 동서울터미널을 出發하여 正午 頃에 店村에 到着하여 터미널 茶房에서 月波 大父宅에 다 도착하였음을 알리니 잠시 후에 달려 오셨다.

내가 몇해를 두고 버리기만 하다가 이번에 찾아가고자한 孝女 商山金氏 할머니의 孝女閣은 盤谷里 말고도 元來 尚州



▶ 孝女閣 문경시 山陽面 盤谷里에 세워진 孝女閣 全景(金湜淵宗親이 說明하고 있다)

忠義壇 忠烈祠와 함께 洛東面 內谷里 250番地에 1793年(正祖 17年)에 旌閭가 내려져서 세우고 지금은 地方文化財로 指定되어 尚州市와 商山金氏 門中에서 管理하고 있는 碑閣인데 歲久月深하여 碑閣이 極度로 頹落하니 盤谷의 우리 宗親들이 아예 順天金氏의 集姓村인 盤谷에도 또 하나의 孝女碑閣을 세우자는 宗論이 모아져서 崇禎紀元後 四戊(1987年) 七月에 盤谷에 세워짐으로써 두 곳에 孝女閣이 세워져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尚州에 孝

女閣이 있다. 또는 開慶市 盤谷에 孝女閣이 있다하여 자칫 混同하거나 헛갈리기 쉬웠으나 이제 그 疑問은 말끔히 가셨다.

孝는 百行의 根源이니 나라에서나 고을에서 推仰받는 우리 孝女 商山金氏, 할매(경상도 지방에서는 「孝女할매」로 부른다)의 가독한 孝行에 感服할 따름이다.

내가 十數年 前에 幸州奇氏 할머니의 貞節碑를 故鄉 利川



▶ 孝女閣 상주시 남동면 내곡리 250 忠義壇 옆에 있는 孝女閣 사진

에 세우던 일이 새삼 생각나서 더욱 感慨가 無量하였으며, 孝女閣이 두 곳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 세워진들 어떠하랴.

盤谷에서는 金秉台 宗親이 有司를 맡아 手酷하고 있는데 尚州와는 또 달리 地方文化財로 指定되도록 湜淵, 圭八宗親들이 서두르고 있다하여 期待하는 바가 크다.

碑閣안에는 「孝女 故義士 金鎰 故監役 金光潤妻 商山金氏 之門 正廟癸丑 命旌」이라 하였으니 孝女 商山金氏는 襄景公의 七代孫 監役公(諱, 光潤)의 配位로서 商山金鎰公, 無男獨女

이다.

慶尙北道가 1987年에 刊行한 「孝列行誌」와 商山誌 등의 文獻을 考察하건대 孝女의 父親 商山 金鎰 義士가 壬亂當時 尚州 北川場 戰鬪에서 壯烈히 戰死한 消息을 듣고 당시 孝女할매는 當年 17歲의 未笄(미계·비녀를 꽂지 않은)處女를 말한)로 母親과 함께 몸종을 앞세우고 戰場터에 가서 三日만에야 아버님의 屍身을 찾아냈으나 어머니마저 倭兵들에게 禍를 얻게 되어 풀지에 天涯孤兒가 되니 따라 죽으려 하였으나 兩親의 屍身收拾이 漠然한지라 마음을 굳게 다지고 아버지의 시신을 얻고 눈을 30리 길인 洛東面 內谷里 百潔山에 모셔다 장사지내고 白碑를 세우니 이웃은 勿論朝廷에서도 그 孝行을 嘉尚하여 旌閭가 내려졌는데 이대가 正祖 17年(1793年)이고 1899年 高宗 36年에 改板하였으며 父親 商山 金鎰 義士와 함께 尚州 忠義壇 忠烈祠에 配享되시니 可謂 「是父是女」 그 아버지에 그 딸이 아닌

가. 那後 孝女 商山金氏는 우리 順天金門의 監役公(諱, 光潤)의 配位가 되어 富貴多男하시니, 이른바 盤谷의 千石君 八富者와 尚州, 店村, 盤谷一帶의 數百戶의 順天金氏 輩皆가 孝女 商山金氏의 後孫이니 늘라운 일이다.

아버지는 목숨을 바쳐 나라에 忠誠하였고 그 따님은 孝道로서 父母를 섬겼으니 이는 비단 우리 順天金門 뿐만이 아니라 他門에서도 본받을 일로서 孝女 商山金氏 할머니의 孝心이 우리 子孫萬代에 이어져가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하다.

孝女할매 실로 장하십니다. (一無)

池袋交通株式會社

取締役會長 金 仁 培



〒173 東京都板橋區幸町48番地13號
TEL: 03(3955)613(代)
FAX: 03(3530)3888
三慶交通株式會社 横浜市神奈川區羽澤町55

- 襄景公派 判事公 17代孫
- 中央宗親會 顧問
- 大統領冬柏章 紋勳

節齋 金先生(宗瑞) 遺詩

◆ 題匪懈堂 瀟湘八景圖 宗平大君 諱 霖

비해당의 소상팔경도에 쓰다

二樂吾所尚 夙昔姿遊賞 中爲圭組累 役役走塵埃 誰作八景圖 令我動遐想 咫尺雪素間 一毫驅萬像 縮地術何用 六合如在掌 山聳若生物 川流智思長 所樂方在茲 捨此將焉放 我愛貴公子 超然志高爽 出茲物外念 諒哉乃吾黨	樂山樂水 내 좋아하는 바이라 전날에 마음껏 遊賞타가 중년에 벼슬에 얽매어 풍진 속에 분주했네 뉘가 이 팔경도를 그려내어 나의 세속을 떠난 생각 일깨울까 잘막한 하이얀 바탕위에 萬像을 몰아쳐 일필로 그렸으니 축지 술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천지 사방이 손바닥에 있는 듯 우뚱한 산은 살아있는 것 같고 川流는 지혜를 돕누나 좋아할 바가 여기에 있나니 이를 버리고 어디서 찾으랴 敬愛하는 귀공자여 超然한 志氣 고상도하여 物外의 생각 그려냈으니 참으로 우리의 동지일세
--	---

◆ 次凝石亭影堂韻 何松軒 楨影堂

웅석정 영당 운에 차운하다(송헌 하죽의 영당)

青山蘭若側金開 境靜曾無一點埃 百行源深圖乃祖 三生業盡改如來 終然有物同泡影 始也何人見楊灰 唯有光風與明月 千秋萬古照靈臺	푸른 산에 蘭若와 側金이 피었는데 조용한 곳에 한 점의 티끌도 없iera 百行의 근원 孝 깊어 조상을 이었고 三生の 業緣 다해 如來로 돌아갔네 마침내 만물이 물거품과 그림자 같은데 처음에 어느 누가 楊灰를 간파하랴 오직 光風과 밝은 달만이 천추 만고에 영대를 비추고 있네
--	--

◆ 敬呈匪懈堂

삼가 비해당(안평대군)에게 드리다

天生貴公子 不惜賦予私 氣清質亦粹 一聞能十知 神融孔顏學 志奪陶柳詩 志奪陶柳詩 禿盡數千鬼 筆陣追羲之 光輝自大東 燁燁照京師 願加日新功 陳力補明時	하늘이 귀공자를 낼 제 그 賦여 인색하지 않아서 기질이 청명하고 순수하여 하나 듣고 열을 알며 정신은 공자·안자의 학에 용화되고 志氣는 도연명·유종원의 시를 압도하며 붓은 천 마리의 토끼 소모되고 글씨는 왕희지를 追逐했네 그 광휘는 우리나라를 휩쓸었고 멀리 明나라 수도까지 빛났네 바라건대 날로 새 공부 더해서 이 聖世를 힘껏 도와 주소서
---	--

◆ 贈崔德之歸南鄉 號 樞村 諱 鼎

南鄉으로 내려가는 최덕지에게 준 시(최덕지의 호는 연촌, 벼슬은 부제학)

吾子少宦情 中歲退田園 喜見木奴長 尤悅松菊存 南方苦炎熱 構樓臨郊原 翼翼軒窗表 灑氣相吐吞 縱橫壘畝廣 掩映桑麻繁 自可供俯育	그대는 宦路에 없어 중년에 전원으로 물러나 자라는 甘橘나무를 반기고 더욱 소나무와 국화를 좋아했네 남쪽엔 무더위 심해서 다락을 原野에 지으니 나르는 듯 雲霞 밖에 솟았고 天上의 맑은 기운 서로 삼키기도 하며 토하누나 가로 세로 밭두둑 많고 드러나지 않게 보이는 桑麻 무성하여 지자식 부양할 수 있으니
---	---

貨利非所論
彼故不義富
於我如浮雲
但當率天性
濼慮澄本源
不知老將至
樂以窮朝昏
盛朝求俊彥
微書出天關
翰墨榮雖重
猶且厭塵喧
余亦慕高爽
意欲歸衡門
君歸倘先我
邀我開酒尊
人生餘幾日
相與醉醺醺

財利 따위 는할 바 아닐세
저 의롭지 못한 富貴는
마지 뜬 구름처럼 여겼네
그저 天性만을 따라서
私意 버리고 本源을 밝히려
늙어 가는 줄도 모르는 채
즐거움으로 나날을 보내다가
聖主가 俊士를 찾아
궁궐에서 賢士를 부르는 글 내리니
翰墨 달은 영광 소중하지만
끝내 塵진을 싫어했네
나 또한 高尚함을 흠모하여
隱者가 지처하는 衡門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자네가 나보다 먼저 가거들랑
날 불러 술자리 마련하소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는가
서로 흠뻑 취해 보세나

◆ 挽崔德之

최덕지를 哀悼함

歸臥竹林希七賢 更將樽酒得天全 行吟秋水月長照 遊賞春山花欲燃 一兩朱輪光未絕 數枝丹桂影相連 巖然不喜三刀夢 笑殺南柯祿二千	竹林에 돌아가 七賢을 기대하고 또 술잔으로 天真을 제득했네 秋水에 거닐며 시를 읊으니 달이 길이 비쳐있네 春山에 遊賞하니 꽃이 불타듯 하며 한 바퀴 햇빛은 끊임없이 환하고 몇가지 丹桂는 그림자 서로 이었거만 분수에 만족하며 榮轉을 기뻐하지 않고 南柯의 二千石 祿俸을 우습게 여기구려
--	--

◆ 北鎮歌詞 本詩錄 高山歌 韻文

북진가사(時調: 본래 한글로 기록되었으나 이윤곡의 「고산가」를 본받아 한문으로 번역함)

朔風吹木末 明月雪裏寒 萬里邊城杖修劍 長嘯一聲無滯礙 長白山樹幟 豆滿江洗馬 彼哉腐儒 此不誠丈夫哉 麟閣圖傷 不知誰爲先者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속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장검 쥐고 서서 긴 파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iera 장백산에 기를 꽂고 두만강에 말을 씻겨 썩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이냐 어떻다 인각화상을 누가 먼저 하리오
--	--

有文士典南州者餞席 主家婦抱小兒者贈詩南州를 맡아 나가는 한 文士를 전송하는 자리에 主家의 乳母가 안고 있는 어린아기를 보고 준 시(徐居正의 東人詩話에 나온다)

襁褓孩兒骨格奇 平生莫恨生子遲 愛情必是終無已 南去臨臨念在茲	강보에 싸인 아이 골격이 기이하니 평생에 자식 늦다 한하지 마소 그 애정 끝내 그지 없을 터이니 南으로 가서 백성에게도 이같이 생각해 주오
--	--

◆ 有懷 느낌이 있어

兩道監司節制公 羨君青眼好相逢 忍吾若問今何樣 白髮猶登紫閣中	두 道의 監司에 節制使가 단났는데 靑眼으로 대하는 그대들이 부러워 나더러 지금 무엇하느냐고 묻는다면 늘그막에 그대로 宦路에 매어 있다네 (平安鄭 監司 威吉李 監司 金 節制 俱有感誼寄示之云 名未詳) (평안도 감사와 함길도 감사와 金 節制使는 다 感誼가 있는 사이인데 두 감사의 성명은 자세하지 않다.)
--	--

祝

創立八週年

順天金氏中央宗親會

顧	顧	顧	顧	顧	顧	顧	顧	顧	顧	顧	顧
問	問	問	問	問	問	問	問	問	問	問	問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昇	行	椿	達	仁	采	詰	道	大	福	鍾	致
淵	燁	集	賢	培	源	熙	淵	淵	山	鎬	傑

中央宗親會를 訪問하신 분

1997년 3월 10일 현재

本 中央宗親會 宗報編輯室을 수시로 찾아오셔서 慰勞하시고 激勵하여 주신 宗親여러분과 來賓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宗報編輯室)

芳 名	住 所	電 話
金 漢 福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475-9	0331-263-1648
金 柱 貞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경남④ 309-1401	012-359-4764
金 必 洙	인천시 강화군읍 남산리 74-1	032-932-5082
金 喆 熙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④ 77-803	572-5059
金 喆 俊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153-1	678-8225
金 龍 薰	은평구 응암2동 227-28 장미 나-301호	353-3649
金 光 澤	인양시 동안구 비산동 한양은하수④ 503-511	0348-81-8243
金 仁 培	日本國東京都板橋區幸町 48-13	033955-613(代)
金 志 英	강동구 천호동 83-24	249-8400
金 浩 淵	성북구 돈암동 한신④ 110-1702	752-2222
金 政 壹	광주시 서구 화정동 928-2 금호타운④ 105-602	363-8183
金 東 英	전북 임실군 삼계면 후천리	0673-42-7667
金 榮 培	마포구 선교동 475-9	717-2668
金 權 熙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41-13	661-7730
金 東 洙	전남 순천시 석현동 31-6	0661-52-8441
金 龜 淵	고양시 주교동 596 동원3차④ 306	967-4212
金 東 俊	전북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42-7309
金 尙 淵	마포구 염리동 168-9 의료보험회관	705-6060~1
金 虎 南	경북 상주시 성동동 159	0582-34-8811
金 文 燮	송파구 가락지구 252-27	406-2741



始祖 墓祀 嚴修

지난해 11월 11일은 음력으로 10월 11일로써 우리의始祖인 平陽君의 墓祀日 이시다.

제사 전일부터 全國各地에서 모인 宗親들이 밤늦도록 情談이 이어졌다.

제사 당일엔 아침에 날씨가 꺾어서 不得已 同源齋大廳에서 제사를 올리기

로 準備를 하였으나 열시가 되면서 날씨가 차차 개이기 시작하여 열한시경에는 제법 햇살이 쬐이므로 墓前에다 配設하고 舉行하였는데 任實의 東俊宗親의 執禮唱笏로 시작하여 初獻官에 任實의 東英, 亞獻官에는 釜山의 柄箕宗親, 安東의 鳳煥이 終獻하고 大祝에는 安東의 鳳煥이 分定되었다.

山神祭 또한 獻官에 東哲, 祝官에는 守鉛, 高陽의 世淵宗親의 執禮로 嚴修



金權熙 會長은 人事말에서 會員各自가 親睦을 다지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며 中央宗親會의 各種 行事에도 積極的으로 協助해 나가자고 強調하였다.

이 자리에는 光熙 景德齋 都 有司(宗親도 參席하여 最近 景德齋의 維持管理 現況을 說明하고 學族의 人 協助를 付託하기도 하였다. (二無)

宗睦會 月例會와 送年の 밤

宗睦會에서는 저물어가는 丙子年을 보내면서 지난 十二月 二十七日 金曜日 下午 6時 30分에 서울市廳 앞 漢陽食堂에서 月例會를 兼한 送年の 밤을 盛大히 베풀었다.

金權熙 會長은 人事말에서 會員各自가 親睦을 다지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며 中央宗親會의 各種 行事에도 積極的으로 協助해 나가자고 強調하였다.

이 자리에는 光熙 景德齋 都 有司(宗親도 參席하여 最近 景德齋의 維持管理 現況을 說明하고 學族의 人 協助를 付託하기도 하였다. (二無)



<月例會 光景>

祝

創立八週年

順天金氏中央宗親會

- | | | | | | | | | | | | | | | |
|-----|-----|-----|-----|-----|-----|-----|-----|-----|-----|-----|-----|-----|-----|------|
| 副會長 | 副會長 | 副會長 | 副會長 | 副會長 | 副會長 | 副會長 | 副會長 | 副會長 | 副會長 | 副會長 | 副會長 | 副會長 | 會長 | 名譽會長 |
| 金甫淵 | 金喆俊 | 金東吾 | 金敏淵 | 金振聲 | 金文載 | 金沅杰 | 金權熙 | 金石淵 | 金料元 | 金浚永 | 金喆熙 | 金載俊 | 金鍾植 | 金采庸 |

花川書院復享景德祠上樑文

■ 註 : 本報 第十三號에 「花川書院參拜記」라는 題下에 安東市 豊川面 廣德里 舊基에 花川書院을 새로 세워 東籬公(諱允安) 祖를 復享하게된 經緯를 紹介한 바 있으나 龍田 金喆熙 本會 顧問께서 撰하여 復元錄에 실었던 上樑文은 紙面關係로 실지 못하고 不得已 이번 호에 仁熙 宗務幹事의 譯文과 함께 그 原文을 掲載합니다. (一無 金炳鎔(前宗報編輯委員長))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음 이 없음은 理致이고 허물어졌다가 본대로 일어서는 것은 運數인가. 여러 해를 두고 경영하던 옛터에 時日이 오래 걸리지 않고 새로 廟宇를 세웠으니 만일에 靈魂이 있으면 享祀를 어찌 그만둘까.

삼가 생각컨대 文敬公謙菴柳先生은 近道한 資質로 明倫의 學者이다. 陶山의 高弟이고 立岩의 長子이다. 모두다 말하기를 金昆으로 말하자면 河南程伯子를 겨룰만하고 玉季로 본다면 저 洛下의 裴晉公 같은 이도 辭讓치 않는다고 칭송하였다. 집이름을 謙字로 함은 師門에서도 期待가 컸고 백성을 가르치는데 義理로 함은 先生의 自待가 또한 깊었다. 어찌서 壽命에는 仁者必壽를 얻지 못하고 또 벼슬자리도 德必有爵에 알맞지 않았을까 일찍이 壬辰倭亂을 만나서는 미리 防禦할 豫備 못했음을 歎息하셨고 晩年에는 높은 文章을 著述하여 箱子속에 備置하여 놓은 것은 저 先聖들께 羽翼이 될만했고 또한 後代에게 啓導하자는 뜻이었는데 원통하게도 文集을 破내지도 못하고 생각지 않던 洛東江 水神에 잃어버렸으니 어찌 斯文의 災殃이 秦始皇焚詩書보다도 몇배나 酷毒하다고 하겠다.

삼가 생각컨대 府使東籬先生金公은 어릴 때 退溪先生이 보고 奇童이라고 稱讚하였고 朴嘯阜先生도 器量이 厚重하다고 기리셨고 具柏潭金鶴峰兩先生도 똑같이 어질고 豪氣스럽다고 嘆賞하셨다. 한 絕句 詠海詩는 여러 章甫들이 그 器量을 매우 드높였다. 五賢陞庶疏는 西厓先生이 크게 기리셨다. 師門에 가장 오래도록 親炙하고 師

事함은 오직 先生이 篤實한 行實이 있어서이다. 이리므로서 이 書院에 永遠토록 配享되셨다. 學問에는 根本을 함꼐고 몸가짐은 檢소하였다. 治民에는 群衆이 畏服하니 그 感動됨을 알 수 있겠다.

또 삼가 생각컨대 縣監拙齋先生柳公은 忠孝가 그 家學이요 鄭文莊公이 그 師門이다. 고요이 誠敬을 마음에 꼭 간직하셨고 天地理數를 動察하면서 十二卦象을 풀이하셨는데 그 眞諦를 徵驗할 수 있고 四七理氣의 辯證도 그 혼자만이 據得함을 알 수 있다. 그릇된 禮法을 바로잡아 虛偽記錄을 없앴으니 이것이야말로 根本을 거슬러 眞源을 研究하였고 밝은 德을 닦아 倫理를 힘썼으니 이도 또한 바른 學問과 公平한 正論이다.

슬프다 이것이 어찌 아름다운 君子는 끝내 잊을 수 없다는 옛말이 아닌가 대개 지나간 이 書院의 始創은 바로 이러한 때문인데 그 中間에 風雨를 겪으면서 不幸이도 道德이 무너지고 書院이 毀撤을 당하였으나 至今은 나라가 光復되고 많은 儒林들이 復設할 議論을 하였으나 일은 워낙 巨創하고 힘은 不足하여 그리 쉽지 않던차에 多幸이도 先生의 後裔 快夏氏가 數億의 巨금을 獨擔하여 위의 廟宇로 불어 그 다음 堂室 門樓 直舍 및 周旋 將事地까지 一新하게 조금도 不足함이 없게 하였으니 山氣는 더욱 秀麗하고 水色은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앞서 이른바 지나간 일이 다시 돌아오고 없어진 것이 새로 이루어진다는 理數가 바로 이렇지 아니한가 감히 짚막한 노배를 지어 저 큰 일을 도운다. 저 東쪽을 바라보라

우뚝한 花山이 半空에 솟았구나. 허늘이 만든 이 河回마을에 先生이 誕降하여 儒風을 떨치셨다.

저 西쪽을 바라보라 芙蓉峰이 秀麗하니 가히 棲息할만하다. 至今 옛터에 書院을 復設하니. 도덕과 文章이 다시 살아나는 듯하네.

저 南쪽을 바라보라 南山에 비가 개니 푸른 아지랑이가 열키었구나. 늦은 봄 三月달에 글 읊으면서 돌아오니. 완연히 長者를 陪行하고 보는 것 같구나.

저 北쪽을 바라보라 鶴駕山 밝은 빛이 萬古토록 푸르구나. 푸른기운이 주렴에 들어와 상서됨이 더해지니. 이때에 누구인들 마음이 씻은 것처럼 깨끗하지.

저 들보 위를 우리러 보라 밝은 고요하고 바람은 맑아 달빛은 明朗한데. 여기서 屏山이 그리 멀지 않으니. 兄弟分이 서로 往來하며 友愛있게 閑遊하실 터이지.

저 들보 아래를 내려다 보라 저 흐르는 花川물이 기리 쉬지 않는다. 古昔의 天地가 열린 후 불어, 無窮한 道體가 이같은 것을.

업드려 顧하노니 上樑한 後로는 땅은 하늘에 順應하고 더욱 旺盛하며 선비는 道를 닦고서 더욱 밝아질 것이다. 날마다 工夫하고 달마다 研究하면 左右逢原의 境地에 이를 수 있고 봄에는 風樂하고 여름에는 글 외워서 藝德并進의 工夫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진실로 이같이 하면 明倫의 學問이 저절로 施行될 것이고 能히 이렇게 하면 道를 닦는 教化도 또한 어렵지 않을진저.

檀紀 四三二七年 民國之再 甲戌四月念三日 後學 順天金喆熙 삼가 지음.

花川書院復享景德祠上樑文

無往不復者理也 有廢與興者數耶 積歲營于舊基 不日成其新廟 豈如在矣 享何已焉 恭惟文敬公謙菴柳先生 近道之英明倫之學 陶山之高弟立巖之長房 咸曰金昆可肩 河南程伯子 亦稱玉季 不讓洛下裴晉公 著處以謙師門所期 實大 教民以義 先生之自待亦深 奈壽命之不假其仁 又爵位之未得稱其德 曾值龍已之亂 嘆未備於陰雨之前 晚發星斗之章 昔與諱於祖德之裏 是不但羽翼先聖 亦足以啓牖後人 嗟判別之未及 忽見失於洛神 胡斯文之被禍 云有甚夫秦火 且惟府使東籬先生金公 幼見奇於陶叟 長器重於嘯巖 以至栢鶴諸老 咸一辭曰賢豪 一絕詠海之詩 衆甫稱其器量 五賢陞庶之疏 歷老大加嘆賞 蓋師事之最久 惟先生之是獨 乃所以於斯院 永配食於千僂 爲學務未持身清儉 治民畏服 可觀而感 且惟縣監拙齋先生柳公 忠孝其家 學文莊師其門 靜存誠敬 動察乾坤 十二卦象之演 可驗其妙諦 四七理氣之辨 亦認其獨契 正誤禮破偽錄是 可曰溯本而究源 修明德務齊倫 亦所以正學而公言 於乎 斯豈非有美君子之終不可沒者耶 蓋往昔斯院之始創 良

有以也 而間經風雨 不幸見撤世道之圯也 今又因邦家光復 多士發復設之議 然事鉅力綿 經紀不甚易也 何幸得先生之肖裔快夏甫 獨擔數億之巨費 上自廟宇下至堂室門樓直舍 周旋將事之地 靡不一新而有裕 山如增秀水若增其 向所謂往復興廢之有理數者 非如是也耶 敢撰短引 遙助盛事 拋標東屹立花山出半空 天作河回名一里 先生誕降振儒風 拋標西 芙蓉峰秀足曲樓 今仍舊址重開院 斯道斯文可復從 拋標南 南山雨霽繞青嵐 暮春三月時歸日 恍若親陪杖履監 拋標北 鶴駕山光萬古碧 碧氣入簾瑞采增 此時誰不心如錦 拋標上 夜靜風清月色明 此距屏山近不遠 椽軒時與閑往來 拋標下 一派花川流不舍 誰識古今天地間 無窮道體若斯者 伏願上樑之後 地應天而益旺 士修進而益明 日進月征 庶可造左右逢原之域 春結夏補 亦得做藝德并進之工 誠如是焉 明倫之學可得行也 苟能是矣 修進之教亦不難哉

檀紀 四三二七年 民國之再 甲戌 四月念三日

後學 順天金喆熙 謹撰

第十二回 大學生 교양강좌 안내

중앙총친회에서 지난 86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교양강좌를 금년도第十二회 수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전국의 종친 여러분께서는 2세 교육사업의 일환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順天金氏의 자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第十二회 대학생 교양강좌에 참석코자 하는 희망자나 중앙총친회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육실과 사위장, 화장실들을 남자용, 여자용으로 신축하고 여자숙소도 신축하였음.

■ 강좌 예정일: 八月十三日~十七日(五日間)

■ 강좌 장소: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방축동 始祖齋室(同源齋)

■ 강사: 宗親中에서 전원 위촉(대학교수, 법관, 학자 등)

■ 강의 제목: 族譜의 연원과 편집내용, 家禮상식, 顯祖의 略史, 생활법률 및 일반상식, 기타

■ 수강신청 자격: 順天金氏 남녀 대학생과 동등의 학력 소지자(고교를 졸업한 자 포함)

■ 입소자 결정: 七月二十日까지 접수하고 30명 정도를 선발하여 개별통지함

■ 입소일: 추후 서면으로 개별통지함

■ 수강료: 무료(숙식비와 교재비 등 모든 경비를 중앙총친회에서 전담함)

■ 기타: 수강 수료증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개별 우송함

■ 문의 사항: 전화 (02) 718-0529 또는 서면 문의함

順天金氏中央宗親會

宗務部



順天金氏宗報

本宗報는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家口當 1部씩 無償으로 配布합니다.

發行人 金鍾植 宗報編輯委員 金仁熙

發行所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 46-1 (태평빌딩) 電話: 02-718-0529 印刷所 文苑文化社

題字 無影金仁厚 (中央宗親會 理事)

榮光의 두얼굴

門中の 자랑

玄岩公(故 金鍾喜 한화그룹 創業主)

宗親은 北一高校을 設立하고

아래代인 金昇淵 會長은

北一女子高等學校를 設立 開校



金昇淵 會長



故 玄岩 金鍾喜 會長

天安市街地가 한눈에 드러오는 新富洞 山 111-1 國師峯 중턱 약 10萬坪 地地위에 天安北一高等學校가 세워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22年前이다. 玄岩 金鍾喜公께서는 오래 전부터 念願해오던 國家와 社會가 必要로 하는 有能한 人材를 養成하기 위하여 1975年 5月 31日 學校 法人 天安北一學園을 設立하고 理事長에 就任하면서 前年

11月 14日자로 天安北一高等學校 設立認可를 받아 開校하였다. 校庭에 들어서니 우선 집체 만한 自然石에 새겨진 校訓塔에는 ①愛國하는 사람 ②積極的인 사람 ③合理的인 사람이 새겨졌고, 信念, 勇氣, 奉仕를 親筆로 새겨 세운 設立者訓塔도 눈설지 않으니 내가 이 學校訪問이 初行이 아니고 16年前 玄岩公(故 金鍾喜 宗親의 雅號)의 告別式에 參禮하였었기에 感懷가 남다르다. 北一高校는 現在 36學級에 지금까지 輩出한 卒業生만도 十八面に 걸쳐 1만2천28名에 達하니 그 規模와 實績을 알만하다.

新設된 天安北一女子高等學校는 金昇淵 學校法人財團理事長(한화그룹 會長)이 1995年 設立認可를 받은 후 2年餘의 工事끝에 지난 3月 6日 開校하여 天安地域의 女性高等教育을 담당하게 되었다. 金昇淵 理事長은 天安北一女高는 앞으로 家庭에서의 훌륭한 어머니 社會에서의 實力있는 女性을 길러내는데 最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能力과 德性을 두루 갖춘 女性을 길러낸다는 目標아래 올해 8學級 4백8名의 첫 新入生을 맞은 北一女高는 국고 지원없이 運營된다 한다. 이로서 天安北一學園은 22年前에 玄岩 會長께서 設立한 北一高校와 함께 2代에 걸친 有英事業으로 男女高等學校를 거느리는 名門의 私學財團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으니 本 人들의 榮耀는 勿論 우리 家門에도 큰 榮光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一無)



玄岩公이 세운 北一高等學校 全景

金昇淵 會長이 세운 北一女子高等學校 全景

천안북일고등학교 Ch'onan Bukil High School
천안북일여자고등학교 Ch'onan Bukil Girls' High School

학교법인천안북일학원 Ch'onan Bukil Education Foundation



人事

- 金南洙 (楊平郡) 代議員에 任함
- 金文煥 (서울中區) 金東洙 (順天市) 金相基 (光州市) 金基元 (公州市) 理事에 任함
- 金世淵代議員 高陽市 金相默代議員 海南會長 金柄崙代議員 城南市 金東俊代議員 任實郡 金光永代議員 錦山郡 金慶熙代議員 富川市 金釘祿代議員 城東區 理事에 任함
- 金喆俊(理事) 金甫淵代議員 釜山會長 副會長에 任함
- 一九九七年 三月 二十四日字

公告

順天金氏中央宗親會

第八期定期總會 開催公告

會則第十二條一項에 依據 一九九七年 第八期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함을 公告합니다. (個別通知 省略)

一九九七年 三月 二十四日

順天金氏中央宗親會

會長 金鍾植

一. 日時: 一九九七年 四月 二十日(日)

正午(十一時)

二. 場所: 서울特別市 中區 長橋洞 五五番地

玄岩빌딩 二十八層

한화그룹 大講堂

連絡處: 中央宗親會

電話: 七一八-〇五二九番

전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200m거 리 을지로2가 중소기업은행 三一빌딩앞

三. 參席範圍

一. 中央宗親會 全任員 및 代議員

二. 全國地域宗親會 任員과 뜻있는 宗親

四. 議案

一. 業務報告

二. 第八期 收入支出 決算報告

三. 第九期 豫算案 審議

四. 任員 補選의 件

五. 其他 討議事項

全國地域宗親會會長께서는 順天金氏 宗報가 到着되는대로 宗親 및 全任員께 널리 連絡하여 많이 參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